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관의 특징에 대한 분석평가

박 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채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조국애를 고취할 일념밑에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민족의 계몽을 위하여 한동안 출판활동에도 열정을 쏟아부었다.》(《김일성전집》 제96권 4페이지)

신채호(1880—1936)는 20세기초의 애국문화운동가였으며 민족주의자였다. 그의 호는 무애 등 여러가지였으나 단재로 널리 알려졌다. 신채호는 19살 되던 해인 1898년부터 성균관에서 공부하였으며 22살때에는 청원군 가덕면소재지인 인차리에 있던 문동학원에서 교원으로 있었다.

신채호는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일제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가 극도에 이르러 민족적위기가 격화되자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당시 애국문화운동가의 한사람이었던 장지연의 주선으로 《황성신문》의 기자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애국문화운동에 나섰다.

그는 1905년 8월 진보적신문인 《대한매일신보》창간에 참가하였으며 《황성신문》과 《서우》, 《대한자강회월보》, 《서북학회월보》 등 여러 잡지들에 인민들의 민족적각성을 높여 그들을 반침략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많은 글들을 발표하였다.

그가 저술한 대표적인 역사책들로는 《독사신론》, 《조선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을지문덕전》, 《리충무공전》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책들에는 신채호의 민족주의역사관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관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역사를 단순히 사건,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가 아니라 당대의 구체적현실 즉 민족적리해관계와 그 승패의 과정으로 인식한것이다.

신채호는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의 기록》이라는 말로 자기의 민족주의사관을 정립하였다.

신채호의 역사연구는 많은 경우 조선고대 및 중세사를 기본대상으로 진행되였다. 그의 고대사관은 최초의 근대민족주의사론으로 평가된 《독사신론》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신채호는 역사를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고대와 중세에 이르는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체계에서 파악하고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 근대역사에 귀착시켜 론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민족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신채호는 《우리 민족 발달의 제1기는 우리 민족이 료동, 만주, 조선, 삼한 각지에 뻗어나가 다른 민족을 정복흡수하던 시기요, 우리 민족 발달의 제2기는 민족안의 정쟁이 격화되어 삼국이 대립전투하던 시기요, 우리 민족 발달의 제3기는 고구려, 발해가 멸망하여 대륙땅을 잃고 압록강이북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한 시기이다.》라고 하였다.(《신채호전집》 상 471~473페이지)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신채호가 민족사발달의 단계를 발전사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주로는 《약소국》으로 전락되는 과정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분석한것이였다. 즉 그는 우

리 민족사를 발전, 분열, 정체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로부터 일연의 《삼국유사》와 김종서, 정린지의 《고려사》,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이르는 역사서술에서 제기된 민족사리해 및 서술과는 명백하게 차이나는 것이었다.

신채호는 고구려멸망이후 민족사의 퇴보적경향을 사실로 제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이 왜 고구려멸망이후부터 고려초엽까지 분립하여 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에 많은 주의를 돌렸다.

그는 자기가 서술한 《독사신론》에서 《...단군조선령역이 분열되어 십수국이 된 시대이며 다음에는 고구려가 한수(한강)이북에 건국하고 신라, 백제는 한수이남에 병립하였으니 이는 십수국이 합하여 3국이 된 시대이며 또 그다음에는 고구려가 망하여 발해가 되고 백제가 망하여 신라에 합하였으니 이는 3국이 합하여 량국이 된 시대이며 그다음에는 발해가 망하여 압록이서의 령토는 드디어 거란, 몽골 등 다른 종족에게 주고 우리 단군왕조의 옛 령토의 절반이상을 구백여년간 잃었으니 우리 고려태조가 우리 동국을 통일하였다 하며 개국후에도 옛 우리 동국을 통일하였다 하나 이는 절반짜리통일이요 전체적인 통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신라에 의한 국토의 《통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선봉건왕조성립이후의 역사도 고구려, 발해의 령토, 주민, 주권 등을 하나로 완전히 통일하지 못한것으로 보고 비판적인것으로 대하였음을 보여준다.

신채호는 단군조선이 실지 존재한 사실을 강조하였을뿐아니라 이전시기 그를 허구로 생각한데 대하여서도 호되게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오호, 우리 동국을 개창하신 시조가 단군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의 우리가 단군시대를 반신반의함이 창세기읽듯 함과 같으니 과연 단군시대가 불가사의의 시대인가. 토지의 령사가 있는것만 알고 민족력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 동국의 땅을 차지하던 민족이면 그 어느 종족을 불문하고 모두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또 이 동국땅을 지배하던 민족이면 그 어느 나라 사람임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우리 령사속에 넣는다. 오, 그 몽매함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분열 그자체도 불행한 일이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뒤 룡동지역을 잃게 된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신채호의 이러한 령사인식은 사대주의와 식민주의사관의 혼탁속에서 우리의 민족사가 빛을 잃어가던 당시 조건에서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것이었다.

신채호의 령사인식과 서술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였다는것은 1929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조선사연구초》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 책에서 신채호는 조선력사가운데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본 일련의 문제들을 6개 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우리 나라 고대시기의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이 리두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령사연구의 선결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해석방법과 그 해석법에서 얻은 령사연구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삼국지》동이 령전을 교정하게 되는 리유를 밝히고 틀린 문구와 기사를 교정하였다. 중국의 옛 기록들이 수천년을 전해내려오는 과정에 잘못되고 뒤바뀐것이 많기때문에 반드시 교정하지 않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신채호는 고조선때부터 고려이후시기까지의 평양의 위치를 고증하고 평양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켜여진 이유를 밝혔으며 1135~1136년에 있는 묘청의 정변을 조선력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사연구초》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연구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역사사료고증과 비판적인 취사선택에 관한 문제, 역사연구에서 사대주의를 없앨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조선사연구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관의 특징은 다음으로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를 비판적견지에서 체계화하려고 노력한것이다.

신채호는 우리 나라의 고대, 중세사를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심으로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고구려를 크게 내세운 대표적인 역사학자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고 강제적인 《합병》이 이루어지자 압록강을 건너 만주지역으로 들어간 신채호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답사하고 자기가 구상하였던 고대사관연구의 자료들을 재확인하는것으로부터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동창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그는 현지로부터 200여리나 떨어져있는 집안일대의 고구려유적을 답사하였다. 그는 당시의 체험과 감동을 후날 《조선상고사》총론에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 글에서 신채호는 《집안현의 고구려유적을 한번 보는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된 고구려사를 만번 읽는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시기의 유적에 대한 현지답사와 그를 통한 역사인식에 큰 힘을 넣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압록강변의 집안현을 방문한것이 일생에 기념이 될만 한 장관》이었다고 하면서 《내가 아령방면과 만주에 있을 때 우리의 사적을 찾기에 거의 전력을 다하다 싶이 하였는데 여간 많지 않았다. 저 중국인의 손에 자꾸 없어지고만다. 이를 생각하면 과연 통곡할수밖에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북경시대의 단재》)

그는 고구려, 발해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 교육에서 언제나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당시 인민들의 투쟁과 승리를 크게 강조하였고 조선봉건왕조성립이후에는 왜 우리나라가 《약소국》행세밖에 하지 못하다가 종당에는 일제의 침략까지 받게 되였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그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신채호가 추구한 조선력사연구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망국의 역사적원인이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채호는 20대에 벌써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것은 그가 조선봉건왕조성립이후 《약소국》으로서의 존재와 망국의 책임을 고려시기의 역사가 김부식에게서 찾았다는것이다. 그가 늘 역사가의 사명이 무겁다고 말한것은 그자신보다 김부식에 대한 지탄이였다고 볼수 있다.

신채호는 《동사강목》의 저자 안정복이 우리가 료동땅을 잃어버리게 된것이 리성제의 《위화도회군》때문이라고 한데 대하여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오랜것이므로 더 멀리 그 원인을 파고들면 김부식이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하였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신채호는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밖으로 내버린다면 어느 나라의 역사속에 넣어야 하는가고 반문하면서 발해의 대씨가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오호라. 우리 나라가 압록이서를 버리고 적국에 넘긴것이 어느때부터였는가.

그것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던 때부터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발해 대씨의 혈통은 단군의 자손이요, 그 백성은 우리 부여의 종족이요, 그 강토는 고구려의 옛땅이니 대씨를 우리 력사에 넣지 않으면 누구를 넣을것이며 대씨를 우리 력사안에 안 넣으면 어느 나라 력사에 넣으리오.》라고 하였다.((《조선상고사》 상 231~232페이지)

신채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편찬에서 발해를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그후 압록강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국경선》으로 인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압록강이북의 땅은 우리의 령토가 아니며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채호는 《...고려말에 최영이 백전백승의 용위를 떨치며 대병력으로 룡동을 들이칠 때가 우리 민족이 수백년간 잃었던 옛 강토를 회복할 시대이거늘 이때에도 압록이외의 일보의 땅을 찾아가지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김부식이 발해를 우리 력사에 넣지 않아 압록이외의 수십만방의 토지가 본래 우리 땅인줄 몰랐기때문이다.》(《조선상고사》 상 243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모든 사실들이 고려시기의 력사가 김부식의 잘못된 력사서술에 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근대말기 우리의 민족사학이 사대와 교조, 대국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사학의 영향으로 급격히 몰락되어가던 때 민족주의적인 사관이 주장된것은 신채호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관은 그의 사회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과학적인 사관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관의 제한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력사의 주체,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를 자기 사관의 기초로, 기본과제로 제기하고 전개하지 못한것이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운동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적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나가는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한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것으로 하여 신채호는 자기 사관을 전개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 인물들에 대하여서는 제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였지만 민족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옳게 보지 못하였다.

고대 및 중세사관전개에서의 신채호의 제한성은 신라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적인 죄행을 력사적사실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것이였다. 신라는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의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으며 우리 나라에 사대주의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였다.

강대국으로 존재하였던 국가가 왜 멸망하였으며 그로부터 찾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주의를 돌리지 못한것은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관의 가장 큰 부족점이였다.